

# “전라선 고속화로 여수관광 활성화해야”

### 지속가능한 여수관광 세미나서 KTX 전용선 신설 등 주장 서울~여수 2시간으로 단축해 수도권 관광객 등 적극 유치

“KTX 소요시간 단축 방안으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함께 KTX 전용선 신설·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 짜여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 KTX(익산-여수) 속도 개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 관광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30일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 세미나’에서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현재 서울 기준 KTX 3시간, 승용차 5시간 소요 거리는 관광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히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경전선 개량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도 현재 여건상 가장 빠른 최적의 실행 방안으로 사료된다”며 “지난 1930년 개통된 광려선(光靈線)의 취지를 살린 연계가 이뤄진다면 여수-광주간 획기적 교통 여건 개선효과와 함께 서울-여수간 2시간 거리 단축으로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관광객을 모두 흡입해 여수 관광 활성화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 여수시가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하는 등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철도 승객은 2013년 대비(2017년 기준) 55.33%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차종별로 KTX(여수엑스포역)가 60% 이상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용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관광의 처음과 끝이 교통으로 귀결되고 향후 지역간 교통은 KTX가 중심 축을 담당할 만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정부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내륙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철도로 조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고 1조원의 대규모 투자자가 이뤄지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후 1일 평균 약 6000명의 관광객과 5600여대의 승용차 증가에 대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어져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 관광의 미래를 밝게 했다.



지난 30일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시 관광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여수관광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여수시 제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 전략’ 주제 발표에 이어 최창호 교수의 ‘여수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 방향’,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전라좌소영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와 김학섭 여수시 관광과장의 ‘여수관광 정책 방향’의 심도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객 증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여수밤바다 중심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 확대, 수도

권 접근성 향상, 환대서비스, 다양한 축제 및 체험행사 등 여수시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여수시와 함께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실질적인 정책 등을 주관해 온 여수시 관광협의회(회장 김창주)는 지난 2017년 11월 여수시와 여수상의,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등 공공부문과 관광협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관광업계 관계자 등 민간부문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창립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 낭만포차 거북선대교 아래 이전

### 관계기관과 협의 마쳐 전기시설 설치...9월께 개장

‘여수 밤바다’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교통체증·쓰레기로 논란이 된 낭만포차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종포해양공원에서 운영 중인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달 말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의 사용 여부를 묻는 여수시의 문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공문에서 “국도 17호선 중화동 거북선대교 하부에 가설 건축물 및 시민 휴식공간과 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교량 관리 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과도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차량이 오가는 다리 아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화재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고 LPG가스가 아닌 전기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포장마차는 교각에서 4~5m 이상 이

격해 설치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을 쓸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런 안전조치를 담은 운영계획을 마련해 익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에도 들어갔다.

설계 용역이 5월 중 나오면, 바다 작업과 화장실 공사 등 기반시설 작업을 한 뒤 늦어도 9월에는 낭만포차를 열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를 비롯해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낭만포차 운영자들의 영업이 9월까지 예정돼 있어 새로운 운영자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종포해양공원에 문을 연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와 함께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으나 쓰레기와 소음, 주차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낭만포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9월 이전 예산을 책정했으나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5개월간 운영



여수시는 2일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와 웅천친수공원 해변이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윈드서핑, 밧기요트, 시트카약, 크루저를 체험할 수 있다.

웅천친수공원 해변에서는 윈드서핑, 밧기요트,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시민과 관광객은

누구나 현장접수와 전화예약(061-692-8225)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과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친수공원에서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철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트카약, 시트카약, 드래곤보트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HOT ROAD 페스티벌’

### 주민·청년 뭉쳐 4일 학동 선소상가 거리서 다채로운 행사

여수시는 4일 학동 선소상가 거리에서 ‘HOT ROAD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려동 뱃꽃소풍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청소년거리문화마당으로 지역 주민과 청년으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는 열정과 기로 뿔뿔 뭉쳐 행사를 기

획했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대행사로 이날 주무대는 파워 넘치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과 디제이, 댄스무대가 행사 분위기를 달군

다.

이어 거리 곳곳에서는 파이어 스톤쇼, 로맨스 매직, 별룬쇼 등과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선소가 빛나는 밤에는’ 관람객을 축제 주인공으로 만든다.

이벤트 존에서는 누구나 참여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길거리 노래방도 문을 연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여수청년 프리마켓과 페이스 페인팅, 즉석 게임 풍선 이벤트 등을 만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고용부-여수·순천·광양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논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여수지청 3층 소모마루에서 여수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4일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서의 내용

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전남 동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여수지청은 1차 협의회를 통해 구인·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 고용장려금 제도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지역상공회의소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올해 주요 고용 노동정책과 지난해에 이은 일자리 찾사(웃음을 찾는 사업주



만들기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에 협력하고 일자리 정보 공유, 청년·여성·신종년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정부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노동지청 간 일자리 창출 2차 협의회는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지만, 필요할 때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일자리 대책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